

# 생존주의 세대의 초상

-『퀴즈쇼론』

공 종 구 (군산대)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글              | 4. 결정적인 성장 공간으로서의 회사와 |
| 2. 성장과 자기 발견의 계기로서의 추방 | 퀴즈                    |
| 3. 공간 이동을 통한 성장과 자기 발견 | 5. 나오는 글              |

## 국문초록

이 글의 분석 대상으로 소환한 텍스트는 김영하의 『퀴즈쇼』이다. ‘생존주의 세대의 성장 서사’라는 틀을 통해 이 작품의 정체성과 의미를 탐색하고 천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이 작품의 서사주체로 기능하는 민수의 인생유전이 생존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표가 될 정도로 가혹한 환경에 놓인 생존주의 세대의 풍경을 가장 선명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이 글은 공간 설정의 서사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집중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민수가 경험하는 성장과 자기발견이 생존주의 세대의 삶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불투명한 미래의 전망을 타개할 만한 뚜렷한 돌파구도 없고 장기적인 삶의 설계 또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민수의 내면을 잠식하고 지배하는 정서는 불안과 공포이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연남동의 외조모 집에서 추방당한 이후

불안과 공포를 반추하는 민수가 생의 방도를 찾아 전전하는 공간은 편의점, 고시원, 회사, 헌책방 등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충격과 혼란을 통해 민수에게 자기발견과 성장의 계기를 자극하고 촉발한다. 냉혹하면서도 살벌한 계산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촉발된 민수의 자기 발견과 성장을 통해 작가는 생존주의 세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민수가 회사 생활에서의 성장과 자기 발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돈과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의 바깥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존주의 세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민수의 고단한 인생유전을 통한 성장과 자기발견을 통해 작가는 생존 자체를 절실한 과제로 씌름해야만 하는 21세기 한국 청년들의 초상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생존주의 세대, 성장과 자기 발견, 추방과 공간 이동, 무한 경쟁, 자본의 논리, 혼란과 충격, 불안과 공포, 환상과 유토피아, 서바이벌 게임, 퀴즈쇼

## 1. 들어가는 글

1990년대 이후의 한국 현대소설 지형에서 김영하의 소설이 차지하고 있는 중심성의 위상에 이의를 달거나 판죽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등단 이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구축한 그의 소설적 영지와 성체는 그 어떤 이질적인 요소의 투입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고 튼실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김영하의 소설이 한국 현대소설 지형에서 그토록 확고한 위상을 굳건하게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김영하의 소설은 상호 이질적인 영역을 하나의 세계로 통합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텍스트라는 사실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반적인 차원의 문학 담론장에서 ‘재미’와 ‘의미’, ‘문학성’과 ‘상업성’, ‘가벼움’과 ‘무거움’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의 코드가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서로 길항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행복하게 융합하거나 공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김영하의 경우는 경이롭게도 서로 양립하기 힘들 정도로 이질적인 그 두 코드가 행복하게 융합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풍부한 그의 상상력 때문이다.

일반 대중 독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연구자나 비평가들이 여출일구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김영하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능과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이다. 구체적으로 김영하의 많은 소설들은 독자들의 독서 동기를 유혹하거나 자극하는 흡인력이 강력한, 가벼우면서도 재미 있는 형식 안에 진중하면서도 묵직한 문제의식과 질문을 내장하고 있다. 등단 이후 김영하가 발표한 대부분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엮이에 가까운 정도의 파격이나 도발적인 서사 설정을 통해서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당대 한국 사회의 환부나 질환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과 성찰을 제공한다. 그는 판타지나 컴퓨터 게임, 섹스의 모티프 등 추리소설이나 탐정소설에서 선호하는 다양한 수준의 대중문화 코드나 문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거나 차용하여 독자들의 독서동기를 자극한다. 그리고 그러한 대중문화의 코드나 문법들은 단순히 평면적인 동원이나 차용의 차원에서 소비되지 않고 텍스트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의식이나 질문에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전략적인 전유의 장치나 기법으로 기능한다. 게다가 김영하의 소설이 던지는 문제의식이나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고 진중하면서도 묵직하다.

실제로 등단 이후 김영하가 발표한 『호출』(1997),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1999), 『오빠가 돌아왔다』(2004),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2010) 등의 작품집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1996), 『아랑은 왜』(2001), 『검은 꽃』(2003), 『빛의 제국』(2006), 『퀴즈쇼』(2007), 『너

의 목소리가 들려』(2012), 『살인자의 기억법』(2013) 등의 장편들은 당대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나 과제들인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본질이나 가족의 의미 탐색 및 대안적인 질서 모색, 물신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의 욕망에 대한 천착, 국가나 민족에 대한 탈민족주의적 성찰이나 전망, 소설의 장르적 본질에 대한 발본적인 질문과 탐색 등에 대한 진중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그러한 문제의식들은 날렵한 서사 및 문체와 절묘하게 동서하면서 서사의 효과는 더욱 배가되고 있다. 이 글의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하고자 하는 『퀴즈 쇼』의 문제의식 또한 김영하 소설의 그러한 서사 회로의 문법 안에서 작동한다. 그것도 아주 활발하게.

김영하는 이 작품의 정체성을 “컴퓨터 네트워크 시대의 성장담이고 연애 소설”<sup>1)</sup>로 규정하고 있다. 복도훈 또한 “1997년 이후 남한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일그러진 모더니티의 수도에서 배제되고 탈락된 젊음에 관한, 젊음을 위한 이야기”<sup>2)</sup>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나 진술처럼 『퀴즈쇼』는 노력과 성취 사이에 가로놓인 극심한 부조화와 괴리의 심연에서 고투를 반복하는 한국의 20대 청년들에게 바치는 헌사이다. 그 헌사에 화답하듯 이 작품의 서사는 단자화된 개인들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무한경쟁의 전선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21세기 한국 청년들의 불안과 공포에 대한 진단과 보고를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작품의 의미를 낙오나 패배에 대한 강박적 불안을 자극하거나 트라우마를 환기하는 경쟁 상황에 지속적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생명관리”는 의례가 되었고, ‘각자도생’은 윤리<sup>3)</sup>가 되어버린 “21세기 한국의 청년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음의 레짐”<sup>4)</sup>인 ‘생존주의 세대 문법의 알레고리’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 글은 공간 설정의 서사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은

1) 김영하, 「작가의 말」, 『퀴즈쇼』, 문학동네, 2007, 462면.

2) 복도훈, 「추방된 젊음, 디오게네스의 윤리」, 김영하, 앞의 책, 444면.

3)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59면.

4)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279면.

“IMF 외환위기 이후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화과정에서 전면화된 생존주의”<sup>5)</sup> 세대의 성장 모티프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사 설정에 주목한 이 글은 성장의 모티프로 설정된 공간 이동의 행로를 추적하면서 그 공간 설정의 의도를 생존주의 세대의 초상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 2. 성장과 자기 발견의 계기로서의 추방

이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는 동력은 서사의 주체로 기능하는 이민수의 다양한 공간 이동이다. 서사의 초점 또한 공간 이동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생 유전을 통한 이민수의 성장에 맞추어져 있다. 공간 이동을 축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이동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성장의 계기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성인 사회로의 존재론적 위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드러나는”<sup>6)</sup> 성장소설이나 “보통 자기 발견을 주요한 약호”<sup>7)</sup>로 동원하는 로드 무비의 장르적 관습의 충직한 적자를 자임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민수가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 이동을 통한 성장을 주요한 서사의 동력으로 동원하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의도하는 문제의식의 핵심은 어디인가?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 작품은 이민수라는 청년의 방향과 좌절을 통한 자기 발견이나 성장의 과정을 매개로 타자와의 경쟁에서 무조건 살아남는 서바이벌이 특권적인 기표로 기능할 정도로 냉혹한 한국 청년세대들의 실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생존주의 세대의 정체성과 문법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

5) 위의 글, 264면.

6)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40면.

7) 수잔 헤이워드/이영기, 『영화사전』, 한나래, 2009, 79면.

우선, 높은 청년 실업률과 ‘학업-직업school-work’의 연계고리의 파괴가 야기한 취업 문제, 그리고 대학 등록금과 대출 그리고 주택자금 문제, 즉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상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업이라는 ‘실패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스펙’을 축적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지되기 시작했으며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구성되는 친밀성 영역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영역(리스크)으로 전환되어, 결혼과 출산이 삶의 필수적 과정보로부터 선택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과거에는 당연시되던 ‘취직-결혼-출산’의 ‘정상적 삶’이 고도의 노력과 능력을 요하는 과업으로 변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서사를 세우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가 일반화된 것이다.<sup>8)</sup>

생존주의 세대에게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시간대는 오직 현재이며, 그 현재에서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욕망의 대상은 애오라지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높은 스펙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일이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을 절체절명의 인생 목표로 정신없이 달려온 그들에게 장기적인 인생 설계나 미래 전망의 서사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경제적인 여유는 거의 없다. 그 동안 영웅적인 청년들의 특권적인 전유물로 인정받아 온 “저항, 반항, 유희, 자유, 도전, 모험, 정치적 열정은 이들의 리얼리티와는 무관”<sup>9)</sup>한 사치이자 잉여로 치부될 뿐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생존과 낙오를 결정하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은 이제 물리적이고 생물학적 연명 혹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제로부터 경쟁적 삶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태로의 의미론적 진이”<sup>10)</sup>를 겪는다. “자기계발 담론, 경영 담론, TV에서 방영되는 각종 리얼리티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들의 압도적 인기와 영향력, 웹툰, 드라마, 문학작품 등에서 ‘베를 로얄’로 상징되는 서바이벌 상황과 알레고리 혹은 상징들이 등장하여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현상”<sup>11)</sup> 등은 모두 이

8) 김홍중, 앞의 책, 268면.

9) 위의 책, 256면.

10) 위의 책, 270면.

11) 위의 책, 271면.

리한 맥락에서이다.

대학원 수료의 높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우울과 무기력을 반복하며 지내는 일상의 반복. 대책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극적인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행하는 빛나와의 결별.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자 생계원이던 외조모의 죽음과 그 이후 밝혀지는 그녀의 막대한 빚으로 인해 절박해진 생계의 압박 등. 이 작품의 서사 주체로 기능하는 이민수에게 주어진 상황은 ‘학업-직업의 연계고리의 파괴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취직-결혼-출산’의 ‘정상적 삶’이 고도의 노력과 능력을 요하는 과업으로 변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서사를 세우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가 일반화’된 생존주의 세대의 특성에 전형적으로 부합한다. 더불어 유일한 혈육이던 외조모의 사망 이후 더욱 불안해진 미래로 인한 불명증에 시달리며 고투를 반복하는 민수의 인생유전 또한 “불확실한 미래와 가혹한 경쟁에 노출된 상황에서 생존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sup>12)</sup>하는 생존세대의 정체성이나 문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투명한 미래의 전망을 타개할 만한 뚜렷한 돌파구도 없고 장기적인 삶의 설계 또한 어려운 처지의 민수의 내면을 잠식하고 지배하는 정서는 불안과 공포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한 주체의 거세 불안에 시달리던 민수에게 외조모의 사후 밝혀진 엄청난 수준의 빚으로 인해 유산으로 물려받아 거주하던 연남동 집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은 이 작품의 ‘중핵 사건’으로 기능한다. ‘생존주의 세대의 성장 서사’로 규정 가능한 이 작품의 서사에서 그 사건은 민수의 자기 발견과 성장에 결정적인 변곡점과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방 이후 생의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전전하는 다양한 공간 이동에서 민수가 경험하는 혼란과 충격을 통한 자기 발견과 성장의 강도는 그 이전 무위도식의 생활에서 오는 방황이나 무기력을 통한 강도와는 존재론적 단층을 형성할 정도로 분명하고도 강력하다는 점에서 연남동 집에서의 추방은 생존주의 세대의 실존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상징적 함의를 지닌다.

---

12) 위의 책, 256-257면.

“보자, 원금이 천이백에 올해가 2006년이니 십팔 년 됐고, 두 달치 이자는 빼주지 뭐. 게다가 이자가 이 할에 연 복리니까 일에서 썩이를 더하면 되겠지만.....김실장, 계산은 잘 했겠지?”.....

“삼익천구백사십칠만구천구백구십구원입니다, 회장님.”.....

“자네는 나가야지. 여기는 이제 내 집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매달 은행이자 갚을 돈도 없잖나. 이익이면 한 달 이자만 해도 백만원이 넘을 거 아냐. 결국 은행에서 집은 경매에 넘기고 그래도 모자라면 유체동산 압류, 즉 차압이 들어오게 돼.....

그는 공연대로 다음날 아침 다시 찾아왔다. 금수부동산 주인과 은행 대출계 직원을 대동하고서였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큰 집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분될 수 있다는 것에 나는 조금 충격을 받았다.<sup>13)</sup>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생활공간”<sup>14)</sup>으로서의 집은 한 인간에게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리적 처소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의 토대, 즉 존재의 거주 장소가 되는 집은 어디에든 있는 것이거나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의미의 중심”<sup>15)</sup>이 되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집의 존재가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sup>16)</sup>해지는 것도, “집은 인간이 만든 물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주장”<sup>17)</sup>이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더불어 집이 등가적 교환 대상으로 거래되거나 교환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없는 것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나 주장은 냉혹하면서도 살벌한 계산의 논리가 지배하는 곰보빵 할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관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다. 민수가 기거하던 연남동 집이 젊었던 시절 외조모의 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3) 김영하, 『퀴즈쇼』, 문학동네, 2007, 51-55면. 앞으로 본문에서의 작품 인용은 별도의 각주 처리 없이 본문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통일함.

14) 전상인, 『공간으로 세상 읽기』, 세창출판사, 2017, 43면.

15) 에드워드 렐프/김덕현외,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14, 97면.

16) 전상인, 앞의 책, 45면.

17) 위의 책, 45면.

은행원에서 사채업자로 변신한 곰보빵 할아버지의 가치없는 계산의 논리에 의해 간단하게 처분됨과 동시에 추방당하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선명하게 증거한다.

### 3. 공간 이동을 통한 성장과 자기발견

유산으로 물려받은 연남동의 외조모 집에서 추방당한 이후 민수가 생의 방도를 찾아 전전하는 공간은 편의점, 고시원, 회사, 헌책방 등이다. 이러한 공간들이 지니는 공통점은 충격과 혼란을 통해 민수에게 자기발견과 성장의 계기를 자극하고 촉발한다는 점이다. 냉혹하면서도 살벌한 계산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촉발된 자기발견과 성장을 통해 작가는 생존주의 세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편의점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저런 종류의 나름 귀여운 일이 아니었다.....

미셀 푸코가 말한 원형감옥, 조지 오웰이 예견한 빅브라더의 세계는 멀리 있지 않았다. 가게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점주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연결돼 있었다. 점주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컴퓨터를 통해 가게 상황을 체크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늘 그렇게 했다.....

점주가 펼친 폴더식 휴대폰은 화면의 액정도 온전치 않은 것이었다.

“얼마 됐다고?”

“사만원이에요”.....

“야, 이 한심한 놈아! 왜 남의 돈으로 니가 인심을 써? 쓰려면 니 돈으로 하란 말이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별모레 서른인 새끼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그런 시간에 나는 인간에게 속고, 또다른 인간에게는 욕을 먹고, **일자리갈지도 않은 일자리에서마저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것이다.** (『퀴즈쇼』, 104-111면)

나는 옆방녀의 죽음을 생각했다. 누군가가 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에 질질

끌려왔을 그녀의 몸을 떠올리자 소름이 돋았다. 그 어떤 강렬한 죽음의 의지가 한 인간을 거기까지 몰아붙인 걸까?.....

그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돌아갈 곳 없는 싸구려 용병 같은 삶이었다. 새벽에는 학원에서 공부를, 낮에는 마트에서 포장 일을, 밤에는 고시원에서 복습을 하는 그녀의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정년까지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다. (『퀴즈쇼』, 292-296면)

주인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오늘이라도 방값 내면 오늘 또 나가는 방 있으니까 그 방으로 들어가면 돼. 어때? 오늘 가능한 거야? 아니면 창고에서 짐 빼줘야 돼. 한정없이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짐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서 주인은 입주자 현황이 기록된 화이트보드로 눈길을 던졌다. 내가 있던 703호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인은 지우개를 들어 702호 부분을 지웠다. 김수희라는 이름은 오래 적혀 있었던 탓인지 잘 지워지지 않았다.....주인은 손목에 힘을 주어 뽀뽀 그 이름을 지웠다. 그리고는 내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조금 전에 말한 ‘오늘 나가는 방’이 바로 그 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퀴즈쇼』, 288면)

추방 이후 민수가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도는 편의점 알바를 통해 고시원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일이다. 편의점 알바와 고시원 생활을 통해서 민수가 발견하게 되는 생의 엄혹한 진실은 우리 사회에서 돈은 신과도 같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면서 구성원들 위에 폭군처럼 군림하는 절대적 권력 그 자체라는 점이다. 더불어 돈이 지배하는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 또한 돈을 “세속적 신”<sup>18)</sup>으로 추앙하고 숭배하는 물신화된 사고에 포박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연남동 집으로부터의 추방 이후 민수가 처음으로 접촉하는 고시원과 편의점 주인은 문제적이다. 이 두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것도 유일무이의 대상으로 신성시하는 물신주의적 사고의 표상으로 기능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등가적 교환 대상으로서의 돈뿐이다. 이들에게 등가적 교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18)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길, 2007, 102면.

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돈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집착과 강박으로 인해 자신들의 인간적인 본질로부터 벗어난 그들의 욕망을 지배하는 것은 가능한 한,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돈이 지닌 전능을 마치 하나의 최고원리가 지니는 전능인 양 신뢰”<sup>19)</sup>하는 편의점과 고시원 주인에게 절대 유일한 생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은 오직 돈의 축적과 획득이며, 최고의 인생목표 또한 마찬가지이다. 열기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남녀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민수의 연민이나 이해가 편의점 주인에게는 어리석은 허영이나 값싼 위선에 불과한 행위로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게다가 민수의 그러한 행위는 자신의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알바들을 감시할 정도로 타자에 대한 불신과 돈에 대한 집착이 지독한 편의점 주인의 냉혹하면서도 정확한 계산의 논리에 의해 알바 임금의 상쇄와 함께 추방당하는 빌미로 작용한다. 또한 ‘돌아갈 곳 없는 싸구려 용병 같은 삶’의 절박한 처지에 절망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젊은 청년의 삶을 마감한 수희씨의 비극적인 생애 또한 고시원 주인에게는 아무런 흔적조차도 남기지 못한다. 유일무이의 개체성과 대체 불가능한 존엄성을 지닌 수희씨의 존재는 고시원 주인에게는 새로운 입주자가 충원되기를 기다리는 가치 중립적인 702호 세입자의 물리적인 소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세속적인 신으로 숭앙하는 고시원 주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하루의 공백조차 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충원되어 임대료의 수입에 조금도 결손이 없기만을 바라는 욕망뿐이기 때문이다.

편의점 알바와 고시원 생활을 통해서 민수는 이 세상이 “그 자체로서 아무런 특성도 없고 획일적이고 비천한 매체로서 모든 것을 무차별화시키고 평준화”<sup>20)</sup>시키는 돈이 “어떤 순간에도 추구할 수 있는 절대적 목표”가 되면서 “삶이라는 기계를 영구 기계”<sup>21)</sup>로 만들어버리는 냉혹하면서도 비정한 곳

---

19) 위의 책, 101면.

20) 위의 책, 90면.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민수는 또한 “모든 인간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단순한 양적인 크기와 관계로 환원”<sup>22)</sup>해버리는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환의 비대칭을 핵심 질료로 하는 환대와 우애, 공감이나 배려의 윤리에 기초한 공동체적 부조의 정신은 들어설 틈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덕목들은 감정의 잉여나 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철저히 타자화될 뿐이라는 사실도 아프게 확인한다. 특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망이 불투명한 공무원 시험 준비와 알바를 병행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청춘을 마감하는 수희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세입자의 현황을 기록하는 화이트보드의 숫자에 불과한 사물로 취급하는 고시원 주인의 냉혹한 태도는 민수에게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자극한다. 이러한 혼란과 충격은 그 동안 세상 물정 모르는 한갓된 책상물림으로 지내온 민수의 인식론적 체계에 심각한 균열과 파열을 내면서 존재와 세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는 성장과 자기 발견의 계기를 제공한다.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탐욕을 동력으로 하는 냉혹하면서도 살벌한 계산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기발견과 성장의 계기를 자극하고 촉발하게 하는 서사 전략과 설정은 편의점과 고시원으로부터의 추방 이후 민수가 전전하는 공간에서도 반복적으로 변주된다. 특히, 이춘성과의 계약을 통해 경험하는 회사 생활에서의 자기발견 및 성장은 이 작품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문제적이지 아닐 수 없다. 회사 생활에서의 자기 발견과 성장의 경험은 그 이전의 그것들과는 존재론적 단층을 형성할 정도로 격렬하고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회사 생활에서의 혼란과 충격의 강도는 편의점 알바와 고시원 생활의 추방을 통해서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 매사에 회피나 방관으로 일관해오던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정도로 강력하고 결정적이다.

21) 게오르그 짐멜/김덕영·윤미애,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27면.

22) 김덕영, 앞의 책, 100면.

## 4. 결정적인 성장 공간으로서의 회사와 퀴즈

민수에게 결정적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회사 생활은 ‘그냥 어디 먼 곳으로 떠나 이 모든 것, 서울에서의 한심한 삶과 결별하고 싶은’(305면)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편의점 알바와 고시원 생활을 청산한 후 사면초가의 상태에 내몰리는 민수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회사의 스카우터로 활동하던 이춘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작된다. 이춘성과의 계약을 계기로 시작되는 3개월 동안의 회사 생활을 통해 민수는 존재론적인 전환의 동기를 자극할 정도의 정체성의 혼란과 충격을 경험하게 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민수에게 성장과 자기 발견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회사는 어떤 공간인가? 그리고 민수가 성장과 자기 발견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인가?

“여기는 지구에서와 같은 지저분한 문제가 전혀 없어. 돈을 벌 필요도 없고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도 않아. 가족을 부양하지도 않고 세금도 없어. 취업을 못 한다고 구박하는, 구박하는, 친척도 없고 우리를 차, 차, 착취하는 기업주도 없어. 여기서는 오직 배, 배, 배우고 깨닫는 삶, 그 가운데 서로 즐기는 삶만 있어. 만약 이런 삶을 원치, 원치 않고 지구에서의 척박한 삶을 원한다면, 그, 그, 그러니까, 아직 미련이 남아 있다면 사무실에 가서 너, 너, 네 정신을 다시 지구로 전송해달라고 하면 돼. 여기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런 너는 파주에 있는 □자형의 건물에서 깨어나 원래의 네 몸과 함께 밖으로 나가면 돼.” (『퀴즈쇼』, 348면)

유리의 놀변을 통해서 설명되는 회사는 현실세계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이상향으로서의 유토피아이다. 취업이나 가족 부양의 의무는 없고 오직 배우고 즐기는 삶만 존재하는 회사와 같은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실세계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회사는 “문화적 속박으로부터 야기된 결핍을 보상하려는 특징”을 지니며 “부재와 상실로 경험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에 관한 문학적 환상”<sup>23)</sup>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잘 알려져있다시피 김영하는 “존재의 불안을 극화”<sup>24)</sup>하면서

“실재의 본질에 가장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과의 화해를 거부”<sup>23)</sup>하는 판타지의 소설적 효과나 가치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열린 태도를 지니고 있는 작가이다. 박기순와의 대담은 판타지에 대한 김영하의 그러한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둘째는 **환상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공간에서 처리함으로써 소설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상적인 이야기를 현실의 공간에서 처리함으로써 문학적 충격이나 낯설게 하기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 무척 매력적이다. 일상이나 사물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소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얼리즘 소설도 환상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즉 소설이란 본질적으로 판타지 아닌가?** 일상성을 친착함으로써 좀더 소설적인 것들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sup>26)</sup>

소설을 본질적으로 판타지로 규정하는 김영하의 진술은 ‘환상을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것들이 갖는 제약에 대한 일탈, 등치적 리얼리티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면서 미메시스와 더불어 문학의 두 가지 충동이자 본질’<sup>27)</sup>로 해석하는 흠의 논의와 동계의 선상에 놓인다. 판타지를 소설의 본질로 해석하는 김영하에게 문학적 환상물은 “다른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생산되고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sup>28)</sup>되는 철저히 사회적인 것이다. 김영하가 이 작품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작품들에서 환상을 자신의 주요한 창작 방법이자 모티프로 적극 동원하거나 차용한 데는 환상에 대한 평소의 그러한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 작품에서의 회사와 퀴즈 모티프 또한 마찬가지이다.

23) 로즈메리 잭슨/서강여성문학연구회,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12면.

24) 위의 책, 14면.

25) 위의 책, 19면.

26) 박기수, 「담뢰와 피뢰의 경쾌한 모색」, 『게릴라』, 1999년 가을호, 62면, 오윤호, 「그림자 사나이의 <틈>에 대한 악몽」, 『작가세계』, 2006년 가을, 109-110면에서 재인용.

27) 캐스린 흠/한창엽,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20-50면 참조.

28) 로즈메리 잭슨, 앞의 책, 11면.

이런 세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밖으로 몇 발짝만 나가면 사방에 눈 밭이 펼쳐진 한가로운 농촌인데, 그 한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모여 퀴즈를 풀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과 선수에 돈을 걸며 주말을 보낸다니. 게다가 이런 경기가 거의 매주 열린다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면 아침마다 신문을 보며 놀랄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침마다 놀라지만 저녁에는 태연하게 잠든다. (『퀴즈쇼』, 368면)

사회자가 마권의 판매를 마감한다고 발표하자 장내는 조용해졌다. 두 팀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게임은 이른바 ‘아웃 방식’으로 시작되었다.....음, 평범한 퀴즈쇼잖아?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기 전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곧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진 팀은 자기 팀에서 가장 기여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 골라 링 아래로 내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골라내는 회의는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말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팀원들 모두가 얼굴을 붉히는 가운데 한 명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된 이십대 여성이 얼굴을 붉히며 당황한다. 나 때문이라고? 그게 말이 돼? 그녀는 패배의 원인이 자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변명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지목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다른 멤버들에게 구하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화도 내고 설득도 해보다가 끝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팀원들의 표정은 냉담했다.....

관중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링 위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요란하게 소리를 질러댔다. 어서 내려오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녀 말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니가 내려와, 인마! (『퀴즈쇼』, 369-370면)

이훈성과의 계약을 통해 신입으로 입사한 민수는 장군을 팀장으로 탕고, 메두사, 유리를 팀원으로 하는 마티니 팀의 멤버로 참여한다. 그 이후 ‘롱맨’이라는 닉네임을 부여받은 민수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란 ‘집회’로 불리는 서바이벌 퀴즈쇼에 선수로 활동하는 것이다. ‘체계와 검증, 연구의 방법론’(330면)보다는 ‘과감성과 과격, 독창적 체계를 더 높이 평가’(330면)하는 집회에서 게임이 이루어지는 장은 “패자부활전이라고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검투장의 무한경쟁”으로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며 패배의 대가는 즉각적인 추방”<sup>29)</sup>으로 이어지는 비정한 세계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리그’와 ‘팀 리그’, ‘아웃 방식’과 ‘장관교 방식’으로 구성된 집회의 게임 장에는 승자의 권력의지와 편집증적인 자기애를 과시하는 공간만 존재할 뿐 패자의 상처와 좌절을 위무하거나 배려하는 공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승자만을 위한 이 공간에서는 게임에서 탈락한 패배자나 낙오자의 상실이나 좌절에 대한 위로나 공감의 윤리가 투입할 최소한의 공간조차도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공간인 집회의 게임 장에서 패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모욕과 조롱 그리고 비난뿐이다.

상대방에 대한 적의와 공격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이 공간에서는 심지어 같은 팀원들 사이에서조차도 환대나 이해의 공간이 들여설 틈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신이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탈락하는 희생양으로 전략하지나 않을까 하는 강박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이 집회의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타자에 대한 이해나 공감의 감수성은 완전히 거세되거나 마비될 수밖에 없다. 대신 이들에게 날카롭게 발달되어 있는 감수성이나 정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공격적인 욕구나 적개심뿐이다. 이와 같이 오직 다른 팀이나 팀원을 이기는 것만이 절대적인 집회에서의 게임 방식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생존주의 세대의 실존의 문법과 알레고리적 유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태도는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이나 배제에 대한 강박적 불안이나 “공포를 공격 영역이 해결해야 할 책무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환원하여 해결점을 모색” 함으로써 “개인들 간의 심리적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그 빈틈으로 불신”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한 “불신은 타자에 대한 적개심”<sup>30)</sup>으로 나타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포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같은 팀의 동료들 사이에서조차도 이해와 공감보다는 적대와 공격적인

29) 복도훈, 앞의 글, 458면.

30) 박형신·정수남, 앞의 책, 307-308면.

에너지가 지배하는 회사 생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민수는 회사로부터의 결별이나 탈출을 모색하게 된다.

민수가 환상의 세계인 회사 생활을 청산하고 현실 세계로 복귀하게 되는 계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회사 생활의 동료로 만난 메두사의 직언이다. ‘내가 볼 때 너는 정신적 불구야. 완벽하게 자기를 이해해줄 사람을 찾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392면)라는 충고에 ‘처음에는 메두사의 말이 불쾌하게만 생각돼 화가 났지만 분노가 가라앉고 나니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392면)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메두사의 충고에 자극을 받은 민수는 그 동안 인간관계에서나 일에서나 실패에 대한 강박적인 불안으로 인해 소극적인 회피나 방관으로 일관해 온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발본적인 성찰과 반성을 시도한다. 메두사의 직언 이후 자신의 방 안에 들어온 직박구리가 창 바깥의 넓은 하늘로 비상하지 못한 채 협소한 방 안에서 좌충우돌하다가 빈사 상태에 이르는 모습을 지켜본 이후 민수가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그 동안 세상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회피나 방관으로 일관해오던 자신의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갈등이나 분열이 얼마나 강한가를 선명하게 증거한다. 메두사의 충고 이후 반복되는 직박구리의 악몽에 시달리며 회사 생활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욕망을 반추하던 차에 메두사와의 정사 이후 유리의 질투로 인한 살해 위협과 공격은 민수가 회사를 탈출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비록 3개월 동안의 길지 않은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에서 대결하게 하는 성장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회사생활은 민수의 성장 및 자기발견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공간으로 기능한다.

**“세상 어디에도 도망갈 곳은 없다는 거. 인간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반복되고 세상은 똑같다는 거야. 거긴 정말 이상한 곳이었는데, 처음에만 그랬을 뿐, 적응하고 나니 하나도 다른 게 없었어. 근데 넌 어떻게 지냈어? 방송국 일은 어때? (『퀴즈쇼』, 426면)**

민수가 회사 생활에서의 성장과 자기 발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도망갈 곳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반복되고 세상은 똑같다는 거야.’라는 민수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돈과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의 바깥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사 탈출 이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수가 임시 거처로 의지하게 되는 공간인 헌책방 ‘어제의 책’은 이러한 발견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연남동 시절부터 거래를 했던 헌책방 ‘어제의 책’ 일층의 골방에서 기거하면서 민수는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현실세계 또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논리와 경쟁이 지배하는 냉혹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회사 생활을 청산한 이후 재회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사가 안 돼 파리 날리는 동네 치킨집 주인 같은 맥빠진 사람’(434면)의 모습에서 이윤에 발발은 영악한 ‘자본가로 변신’(435면)한 헌책방 주인의 변신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강력한 원군으로 기능한다.

민수의 고단한 인생유전을 통한 성장과 자기발견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생존주의 세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민수라는 인물을 통해 작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자랑하면서도 생존 자체를 절실한 과제로 씨름해야만 하는 21세기 한국 청년들의 실존의 초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민수가 자신의 연인이자 구원자인 지원의 ‘잘될거야, 다 잘될 거야(440면)에 대해 선뜻 동의와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것도 21세기 생존주의 세대들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아프게 증언하는 것이다.

## 5. 나오는 글

이 글의 분석 대상으로 소환한 텍스트는 김영하의 『퀴즈쇼』였다. ‘생존주의 세대의 초상’이라는 틀을 통해 이 작품의 정체성과 의미를 탐색하고 천착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었다. 이 작품의 서사주체로 기능하는 민수의 인생유전이 21세기 한국의 청년 세대들이 직면한, 생존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표가 될 정도로 가혹한 생존주의 세대의 풍경을 가장 선명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이 글은 공간 설정의 서사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집중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민수가 경험하는 성장과 자기발견이 생존주의 세대의 삶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탐색하고 천착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서 수행한 논의를 정리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불투명한 미래의 전망을 타개할 만한 뚜렷한 돌파구도 없고 장기적인 삶의 설계 또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민수의 내면을 잠식하고 지배하는 정서는 불안과 공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한 주체의 거세 불안에 시달리던 민수에게 연남동 집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은 이 작품의 ‘중핵 사건’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생존주의 세대의 성장 서사’로 규정 가능한 이 작품의 서사에서 그 사건은 민수의 자기 발견과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연남동의 외조모 집에서 추방당한 이후 민수가 생의 방도를 찾아 전전하는 공간은 편의점, 고시원, 회사, 헌책방 등이었다. 이러한 공간들이 지니는 공통점은 충격과 혼란을 통해 민수에게 자기발견과 성장의 계기를 자극하고 촉발한다는 점이었다. 냉혹하면서도 살벌한 계산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촉발된 자기발견과 성장을 통해 작가는 생존주의 세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탐욕을 동력으로 하는 냉혹하면서도 살벌한 계산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기발견과 성장의 계기를 자극하고 촉발하게 하는 서사 전략과 설정은 편의점과 고시원으로부터의 추방 이후 민수가 전전하는 공간에서도 반복적으로 변주되고 있었다. 특히, 이 춘성과의 계약을 통해 경험하는 회사 생활에서의 자기발견 및 성장은 이 작품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회사 생활

에서의 자기 발견과 성장의 경험은 그 이전의 그것들과는 존재론적 단층을 형성할 정도로 격렬하고 충격적이기 때문이었다. 회사 생활에서의 혼란과 충격의 강도는 편의점 알바와 고시원 생활의 추방을 통해서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 때사에 회피나 방관으로 일관해오던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정도로 강력하고 결정적이었다.

민수가 회사 생활에서의 성장과 자기 발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돈과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의 바깥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회사 탈출 이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수가 임시 거처로 의지하게 되는 공간인 헌책방 ‘어제의 책’은 이러한 발견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연남동 시절부터 거래를 했던 헌책방 ‘어제의 책’ 일층의 골방에서 기거하면서 민수는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현실세계 또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논리와 경쟁이 지배하는 냉혹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이 글은 생존주의 세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민수의 고단한 인생유전을 통한 성장과 자기발견을 통해 생존 자체가 절실한 과제가 될 정도로 참담한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21세기 한국 청년들의 실존의 초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작가의 문제의식의 핵심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1. 자료편

김영하. 『퀴즈쇼』. 문학동네, 2007.

### 2. 국내외 논저

게오르그 짐멜/김덕영·윤미애.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길, 2007.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로즈메리 잭슨/서강여성문학연구회. 『환상성: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수잔 헤이워드/이영기. 『영화사전』. 한나래, 2009.

에드워드 펠프/김덕현 외.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14.

전상인. 『공간으로 세상읽기』. 세창출판사, 2017.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캐스린 홈/한창엽.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Abstracts】

## A Portrait of Existencism Generation

- A Treatise on Quiz Show

Kong Jong-goo

The analytic object of this treatise is the Kim Young-ha's {A Treatise on Quiz show}. The critical mind of this treatise is the search and investigation of identity and meaning of the text through the frame of growth narrative of existencism generation. Because ups and downs of fortune of Min soo who functions narrative subject of this treatise shows landscape of existencism generation most vividly. In relation to the critical mind, this treatise concentrated to the argument which focused on the narrative strategy of space fixation. Concretely, this treatise analysed that Min soo's growth and self-discovery have a close connection to the critical mind of a writer to the life of existencism generation.

Emotion of anxiety and fear dominates inside of Min soo who has no distinct breakthrough and long-term plan of life. Min soo who ruminates anxiety and fear toss about space such as convenience store, company, old book storeexamination academy for the way of life. These spaces stimulates and stirs growth and self-discovery to the Min soo through shock and confusion. The Writer reflected the critical mind to the existencism generation through Min soo's growth and self-discovery.

The fact which Min soo confirms through growth and self-discovery

of company life seldom exist world outside which was controlled by money and emulation. The Writer suggested a portrait of 21th century's korean youth through Min soo's growth and self-discovery.

Key words : existencism generation, growth and self-discovery, expulsion and space movement, infinite competition, logic of capital, shock and confusion, anxiety and fear, fantasy and utopia, survival game, quiz show

이 논문은 2017년 5월 26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7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